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21:1-8
2026 년 11 월 8 일 오전 11 시

엘 에무나(אל אמונה)

< 주여 도우소서 >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계시하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엘 로이'(אל ראי,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와 '엘 샤다이'(אל שדי, 전능하신 하나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 장에서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엘 로이'이셨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창 16:13). 반면, 창세기 17 장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이셨습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곧 '엘 에무나'(אֵל אֱמוּנָה, El Emunah)이십니다.

신명기 32 장 4 절은 하나님을 '엘 에무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 32:4). 여기에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부분이 바로 '엘 에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 장 19 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

1.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때로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 오늘 본문 1 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창 21:1). 이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라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 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2 절). 여러분, 사라는 본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창 11:30). 더욱이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창 18:11).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임신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히 11:11).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창 18:12).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14).

히브리서는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 '엘 에무나'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라는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식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5 년 만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3 절).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이 태어난 지 8 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4 절).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부터 할례를 행하는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으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한편, 이때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6 절).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사라는 자신이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쁨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놀라움이 담겼던 웃음이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엘 에무나'이셨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아들을 얻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백일이 지나고 첫돌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보다 오랫동안 젖을 먹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몇 살에 젖을 뗐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8 절). 아브라함에게 이 잔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 젖을 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살아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75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100 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삭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모두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차례 실수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랄에서도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3. 인간의 실패에도 변함없는 약속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 에무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며,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자녀와 넓은 땅과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자신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기대하기보다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엘 에무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엘 에무나'를 믿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